



창립 50주년 맞은 (주)경농 李炳萬 대표이사 고부가가치 창출만이 기업 경쟁력 담보

1957년 경북농약공사로 출발한 (주)경농이 지난 7월 12일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농업발전을 추구하고자 식량증산이라는 대명제하에 창립, 어느새 지천명(知天命)의 연륜을 쌓아온 (주)경농 李炳萬 대표이사를 만나 적지 않은 소회를 들어 보았다.

“사실 농약의 중요성이 워낙 중차대함에도 사회적 측면에서 이를 보는 시각은 부정적이거나 마지못해 눈감아 주는 수준이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세계속에서 농업자재회사들이 좀더 성장할만한 이유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며 본격 경영 29년의 소회를 털어 놓는다. 그러면서 “농약의 존재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도시인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 책임이 더욱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면서 업계는 물론 정부와 언론이 합심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李대표이사는 “지난 1979년 당시 국내 경제가 전체적으로 호황세를 타고 있을 무렵, 경농이 적자를 나타냄으로써 동반 성장하지 못한 아픔은 지금도 난망(難忘)한 기억이지만, 작으나마 한국농업 발전에 기여하며 지금껏 일신 우일신 해 왔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기업 역량·여건에 맞는 사회환원 사업은 물론 지역 농산물 명품화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표했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해

李대표이사는

“사람에게 안전한 농법으로

다가가자는

취지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업계

에 또 다

른 기회

가 될 수

있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길은 어차피 농약산업의 길이 아니다”고 잘라 말한 뒤 “다만 사회적 요구, 물가, 도시민의 유익성 등 모든 것이 고려돼야 한다. 혹 성과를 내기 위해 조바심을 갖거나 막연히 추상적으로 추진하려 해서는 도농간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합리적 추진을 당부했다.

李대표이사는 끝으로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변화무쌍하다”면서 “다소 빠르지 않은 분야에 적을 두고 있지만 경농은 훌륭한 인재양성을 통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고객의 감동을 일구어 냄으로써 한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